

무너지는 교육

- 송경부 목사 / 2003. 3. 4 -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건 아니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많은 대화주제를 꼽아도 역시 자녀교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계지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교육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대화하며, 교육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 한국인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자녀의 학교성적이 조금이라도 향상할 수만 있다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여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부모들은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 이슈인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 고액과외, 이 과외비를 대기 위해 종류 총 엄마들의 가정부까지 마다하지 않는 현실, 우후죽순으로 세워지는 온갖 학원들... 남들에게 질세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자녀를 과외로 혹사시키는 부모들의 지나친 열성 때문에 가족관계는 계속 멍들어 가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안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을 통한 성공을 위해 어린 자녀들에게 온갖 과외를 시켜가며 수고하지만 성취도는 떨어지는 한국의 교육현실 속에서 파생되는 온갖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공교육의 현장은 이미 인간성의 파괴까지도 용납되는 점수 전쟁터가 되었으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기본적인 예절이 무시되어도, 부모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이유 없는 신경질을 부려도, 심지어 신앙을 멀리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용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점수전쟁을 빙자하여 교실 깊숙이 침투한 저질문화, 욕설, 폭행, 흡연, 음주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자기 외에는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 성향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으로 교육이민, 조기유학, 대안학교 등으로 탈출구를 찾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민은 부모들 삶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교육이민이 불가능한 가정은 아내와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어 결국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등장함으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가정 파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순된 교육제도를 향해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과 조기교육이 너무 과열돼 청소년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된바 있습니다.

(중앙일보 1월21일자 2면 기사 참조).

그야 말로 한국의 이러한 과열된 교육풍토가 국제무대에서 흠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글은 PC 통신 어느 교사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일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들은 오늘날의 제도적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

실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중 3학년 아이들, 다루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엄청나게 많은 가출 아이들, 이제 4명
째 제적을 시킬 것이고.... 출석부 통계내기가 힘들다. 출석부가 지저분하다.
거의 매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결석도 병결이면 좋게. 특하면 사고결, 아이들.. 유거나
무기정확 받은 날짜 다 합치면 아마 50일은 넘을 걸? 그렇다고 문제아들만 모아 놓은 학교
도 아니고 그저 서울에 있는 평범한 학교가 이 정도니 정말 미칠 지경이다.
난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다. 우리 반 아이들한테도 항상 적대감을 갖는 것 같다.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다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
아이들이다... 정말 하루에도 몇 차례씩 힘이 꺾꺾 빠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
다. 벽 앞에 서있는 것이 어쩌면 이보다 덜 답답하지 않을까?”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안으로 최근 들어 기독교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을 시도
하는 부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통계에 따르면 매년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66,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홈스쿨 인구가 폭
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여러 나라와 같이 한국에서도 기독교
홈스쿨링의 잠재력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보다 늘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법을 가
르치는 학교 교육이 자녀들의 인성과 사회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홈스쿨링을 결심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스쿨링이란 하나님께서 자녀교육의 책임을 국가나 학교가 아닌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성경
적 원리(신명기6:6-7)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 학교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항상 가정에서 시작되며 자녀들은 국가가 아닌 부
모에게 속해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며 제도화된 교육이
아닌 좋은 배움의 보금자리인 홈스쿨링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
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